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3월 10일

제1991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 3,16-17)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김옥순 수녀 作

사순 제4주일 (나해)

제 1 독 서 2역대 36,14-16.19-23 | 이스라엘 백성의 유배와 해방으로 주님의 분노와 자비가 드러난다.

화 답 송 시편 137(136) | ◎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제 2 독 서 에페 2,4-10 |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여러분은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복 음 요한 3,14-21 |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15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7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18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20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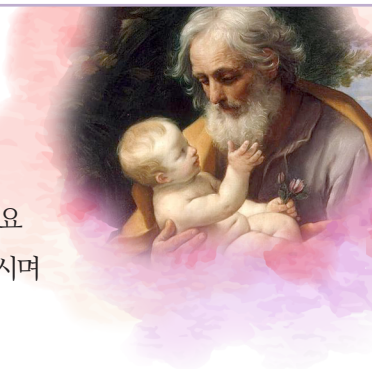
21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3월 성 요셉 성월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주소서.
- ◎ 아멘.



복음 묵상

사순 제4주일에 강조되는 주제는 ‘기쁨’입니다.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입당송). 예수님의 수난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순간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확인하였을 때가 아닐까 합니다. 하물며 내가 ‘하느님 사랑의 대상’임을 확인한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까요? 제1독서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외면에도 변함없이 성실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유배하던 유다인들을 해방하여 준 페르시아 임금의 칙령이 사실은 하느님의 조처였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한결같고 성실하신 하느님의 사랑은 복음에도 잘 드러납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며 되풀이하던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하느님께서 ‘뱀’을 보내시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려고 구리 뱀을 들어 올리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내용은 “-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배상하거나 속죄하는 것은 사랑할 때 나오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를 대신해서라도 배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셔야 한다’라는 표현은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난 주님의 희생을 의미하고, 그렇게 십자가는 사랑이 완성되는 자리가 됩니다.

요한 복음서에 나오는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3,3).”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을 ‘올려다보며’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렇게 날마다 ‘위’로부터 그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참다운 삶의 ‘기쁨’입니다.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

성 마리아 어머니학교

나에게는 한 개의 천사날개밖에 없다.
배우자의 또 하나의 날개와 함께하여 온전한 천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 제6기 어머니학교 수강생 일동 〉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는 제6기 성 마리아 어머니학교를 지난 3월 2일(토)부터 3일(일)까지 NOVA 4-H Educational and Conference Center에서 개강했다. 성 마리아 어머니학교는 신앙 안에서 성 가정의 모델을 통해 건강한 어머니상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정 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제시하는 교회 운동이다. 김태진 주임 신부는 어머니학교 개강 미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어 모두 천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한 개만 주시고 다른 날개는 함께하는 이들의 날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날개는 다른 사람에게 한 개의 날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은 동등한 위치에서 협조자이며 진정한 여성으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시며 수강자들을 격려했다.

처음 3주는 등록이 조금 저조하여 봉사자들이 마음을 졸였지만 수강 신청 마지막 날에 16명이 등록하였다. 봉사자 모두는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제6기 어머니학교를 더욱 열정을 갖고 준비했다. 이번 수강생은 VA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 MD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리치먼드 성 김대건 성당에서 수강 신청을 하였고, 개신교와 비신자도 참여해 수강자 36명의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김태진 지도 신부의 말씀의 전례와 봉사자 축복으로 시작해 강의와 주제 발표, 그룹 나눔, 요가 체조와 그룹 댄스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수강생들은 30-40대 엄마들이 많이 참석했다.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보여준 수강생들은 피곤함도 잊고 모든 강의와 그룹 나눔, 사례 발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엄마들만의 대화의 광장인 그룹 나누기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성 마리아 어머니학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수강자들의 엄마 나이, 즉 50-60대의 시니어 엄마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어머니학교는 나이에 관계없이 “엄마, 어머니”라는 하나의 동질감을 갖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장이다.

(1) 내 딸 나이의 엄마들의 대화 속에서 과거의 나를 반성하고, 칭찬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2) 내 엄마 나이의 엄마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결심하면서, (3) 대화의 광장에 참여한 모든 엄마들이 스스로 변화해서 화해와 용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아름다운 나눔의 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젊은 엄마들에게 지혜를 나누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함께하는 또 하나의 날개”가 되어 줄 시니어 엄마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길 성모님께 간구해 본다.

김태진 신부는 감사축제 미사에서 배우자와 함께 온전한 천사가 되어 하늘을 나는 삶을 가정에서 이루어가기를 당부했다.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사랑이 바탕이 됩니다. 하느님이 주신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의 관심사는 자녀들에게 가게 되고 자녀들과의 가정생활에 온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놓치고 사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지탱해 주는 요소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열정도, 많은 시간도, 많은 돈도 아니며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만 하지 말고 **부부간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열정을 보이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한 개의 천사 날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또 하나의 날개와 함께하여 하느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천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강자들은 어머니학교 교육을 통하여 자신이 찾은 각자의 새로운 삶의 퍼즐 조각을 가슴에 소중히 간직했다. 자신들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조심스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들의 가슴은 설레움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학교 피정을 끝내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서로의 날개가 될 수 있는 천사가 되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성모님께 간구하며 우리 모든 봉사자들은 피정 장소를 떠나는 수강자와 가족들에게 힘찬 응원 박수를 보냈다.



〈 감사축제 파견미사에서 수강자 가족들에게 축복하시는 신부님 〉



〈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는 수강자들 〉

1 2차 현금

- 이번 주일 미사 중에 Catholic Relief Service를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4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 약정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실천하고 있는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를 약정 받습니다.

본당 활동액	본당 세대수 / 약정 세대수(비율)	현재 약정액
\$195,000	2,405 / 282 세대(12%)	\$ 140,340

-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에 함께해 주시길 청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3 The Light is On for You

- 사순 시기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8시까지 성체 현시와 고백성사가 있습니다.
- 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 <https://thelightison.org/>

4 부활 합동 판공성사 안내

- 판공성사 : 3월 19일(화) 오후 2시 - 5시, 저녁 7시 - 9시
- 성사표는 각 가정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받지 못하셨거나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판공성사를 위해 외부에서 신부님을 초빙하여 성사를 드립니다.

5 단체장 회의

- 일시 : 3월 10일(일) 오전 11:30 (A-1,2)

6 꼬미시움 월례 회의

- 일시 : 3월 10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7 하상 문화원 이사회의

- 일시 : 3월 10일(일) 오전 11:30 (교무실)

8 하상 성인학교 2024년 봄학기 안내

- 일정 : 3월 12일(화) - 6월 7일(금)
- 등록 : 3월 10일(일)까지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등록금 : \$60(점심 없음)
- 과목 : 생활영어, 수지요법, 키보드, 라인댄스, 기타, 색소폰, 서양화, 수목화, 민화 / 전시 및 발표회(일정 미정)
- 세부 사항이 있는 안내서 및 신청서는 주보대에 있습니다.
- 문의 : 김 율리야나 (703) 217-2775

9 사도 임원 회의

- 일시 : 3월 15일(금) 오후 8시 (A-1,2)
- 임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 레지오 마리에 아치에스 행사

- 일시 : 3월 17일(일) 오후 3시 (본당)
- 대상 : 행동 단원 및 협조 단원 (참석 필수)
- 문의 : 김국 스테파노 (703) 304-2129

11 하상회 월례 회의

- 일시 : 3월 17일(일) 오전 11:30 (B-3,4)

12 안나회 월례 회의

- 일시 : 3월 17일(일) 오전 11:30 (A-1,2,3)

13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 3월 17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14 CYO/대학생들을 위한 커리어 소개

- 일시 : 3월 17일(일) 오후 3:30 (A-1,2)
- 커리어 주제 : Nursing
- 대상 : CYO 고등학생, 대학생, CCD 중학생
- 주제 발표자 : 서희경 마리아 (주일학교 교사)

15 부활 제대 장식 꽃 봉헌

- 부활 제대 장식을 위해 제대회에서 꽃 봉헌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중미사 예물봉헌

03/10 이번 주 센터빌 1구역

03/17 다음 주 센터빌 2구역

성당 청소

03/10 이번 주 비엔나 1, 2구역

03/17 다음 주 프린스 윌리엄, 우드브릿지

성당을 아름답게 꾸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3월 3일(사순 제3주일)

봉헌금	\$ 8,059.00
교무금	\$ 11,960.00
교무금(신용카드)	\$ 2,320.00
감사 현금	\$ 290.00
온라인 봉헌	\$ 10,120.00
합계	\$ 32,749.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3월 15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3월 17일(일) 오전 6:00 - 7:00

- 주일 강론
- 성서 못자리 : 김덕재 신부 4복음서 강의
[제 15강] '영광의 책에 대해서'

주일 십자가의 길

주일 십자가의 길은
오전 9시 25분에 시작됩니다.
배정된 단체는 **진행자, 십자가, 초복사**를
선정해서 진행해 주세요.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8:00 AM 10:00 AM(교중미사) 2:00 PM(학생미사)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6:00 AM	7:30 PM	11:00 AM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40 주님 수난 일간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수난 40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 ◆ 평일 새벽 5시 30분에 십자가의 길과 미사가 봉헌되며, 주일에는 9시 25분에 있습니다.
- ◆ 십자가 복사와 초 복사를 해 주실 분들은 입구 게시판에 원하는 요일에 이름을 적어 주세요.
- ◆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후문을 이용해 주시고, 주차는 하상관 주차장 앞쪽 라인과 성당 앞쪽 라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성당 쪽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차량 방향을 성당 쪽으로 해 주시어 차 불빛이 주춧가를 향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서행을 부탁드립니다.
- ◆ 토요일에는 지역주민을 위해 꼭 후문을 이용